

조선조 풍수지리의 예언자 南師古(1509~1571)

사람의 살 곳을 고르고 죽은 뒤의 묻힐 자리를 선택하는 체계적 지식을 풍수지리라 한다면 그것은 '땅의 과학'일 수도 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남긴 조선시대의 풍수지리학자 남사고(南師古)는 예언을 적중시킨 인물로도 유명하다. 같은 시대의 울곡 이이(李珥)도 남사고의 뛰어난 예언능력을 증언할 정도이다. 그는 문정왕후의 죽음,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 이인좌의 난 등을 예언해 후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풍수지리가 세계적으로 인기인 모양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 널리 성행되고 있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나는 옛날의 대표적 의사(擬似, psuedo-)과학인 풍수지리를 과학사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옛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생각하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옛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연을 보는 생각이었느냐가 과학사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옛날 풍수지리는 '땅의 과학'

그런 의미에서 풍수지리는 '과학'

분야의 하나로 꼽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의 살 곳을 고르고, 죽은 뒤의 묻힐 자리를 선택하는 체계적 지식을 일러 풍수지리라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땅의 과학'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1982년에 낸 「한국과학사」라는 책에서 우리 전통적 풍수지리를 한 단원으로 다룬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풍수지리는 오늘날에는 '과학'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그것은 미신으로써 성행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미신 경향은 좀 사그러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풍수지리는 유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며칠 전에는 홍콩TV의 드라마 방송에서도 풍수지리를

朴星來

(한국외대 부총장 / 과학사)

소재로 한 내용이 앞치락뒤치락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는 말이다.

여하튼 이 '옛날의 과학' 풍수지리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남긴 옛날의 풍수지리학자, 즉 당시의 과학자 한 사람이 남사고(南師古, 1509~1571)이다. 그는 풍수지리에 도통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그는 여러 가지 예언을 해서 적중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말하자면 그는 풍수지리 이상의 대단한 예언가였다는 것이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9)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의하면 그는 어느 날 아침 동쪽을 보고 살기(殺氣)가 심하니 좋지 않다며 사람들에게 해설해 말하기를 임진년에 왜구가 반드시 크게 몰려오리라고 예언했다. 그는 자기는 그때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삼가라고 당부했는데, 그가 죽고 정말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수광은 이 기록을 아무 논평없이 그의 책에 실고 있다.

이 책에는 또 남사고가 갑자년(1564)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년 태산을 봉(封)하리라고 했으나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더니, 이듬해 1565년 문정(文定)왕후가 죽어 태능에 암시로 장사지냈으니 그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이다. 남사고는 이수광이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수광이 직접 그를 만난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서로 만났을지도 모르는 같은 시대의 너무나 유명한 학자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도 남사고의 뛰어난 예언 능력을 증언하고 있다. 1572년 정월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던 처사(處士) 조식

(曹植)이 죽었는데, 그 전에 이미 남사고가 "올해는 처사성이 광채가 없다"고 말하더니 드디어 조식이 죽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해 남기고 있다. 울곡의 「석담일기」(石潭日記)는 그가 관직에 있던 동안의 기록으로 꽤 긴 자료로 남아있다.

이런 일화(숨은 이야기)란 사건 당시로부터 한참 뒤에 천천히 생겨난 전설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식의 죽음을 미리 예언했다는 울곡의 논평을 보면, 남사고는 그가 살아 있던 당시에 이미 예언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울곡 자신이 남사고의 예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인·서인의 당파싸움 예언

풍수지리의 대가로서 남사고는 당파싸움의 시작을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서울 서쪽의 안산(鞍山)과 동쪽의 낙산(駱山)을 가지고 풍수지리적 해석을 하여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 당파싸움을 벌일 것을 예언했다. 또 여기에 문자풀이를 더하여 동쪽 낙산의 '낙' (駱)이란 글자는 '말을 각각' (馬各) 타고 헤어진다는 뜻이니 뒤에 다시 파당을 나누어 흩어질 것을 보여주며, 서쪽 안산의 '안' (鞍)이란 글자는 바뀐(革) 다음에 편안(安)하리라는 뜻이라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남사고가 풍수지리의 대가로 오래 동안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은 몇 가지 증거로 알 수가 있다. 우선 그의 글로 전해지는 '남사고비결' (南師古秘訣)과 '남격암십승지론' (南格菴十勝地論)이 「정감록」(鄭鑑錄)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풍수지리를 말하고 있다. 둘 다 아주 짧은 예언서들이고, 그러기에 「정감록」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모두가 풍수지리를 말한 내용이다. '남사고비결'에 의하면 한산(漢山)은 뼈가 많고, 한수(漢水)는 여울이 많아서 필시 골육상잔이 많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사고는 소백산 아래의 예주(禮州)와 마곡(摩谷)등을 피난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꼽기도 한다. 또 '남격암십승지론'에서는 풍기, 화산, 보은, 예천, 운봉, 공주, 영월, 무주, 부안, 가야산 등등의 지역을 골라 산수의 특징을 말하고, 그 곳들이 길지(吉地)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은 이 글들이 정말로 남사고의 작품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남사고의 이름은 너무나 많은 역사 기록에 나오고, 그와 함께 살았던 이름난 이들의 증언이 있으므로 그런 인물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일생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제대로 연구해 밝혀진 것은 없다. 그는 호를 격암(格菴)이라 했고, 본관은 의령(宜寧) 또는 영양(英陽)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른 이름난 사람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이며 조상은 무엇을 했고, 또 후손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의 고향이 경상북도 울진(蔚珍)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기록도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학자들의 조사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온갖 신비스런 전설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명종 말년에 그가 사직동 방면에 왕기(王氣)가 서린 것을 보고 이를 예언했다는 것이다. 또 언젠가는 영천(榮川)을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그치고 소백산 허리에 흰 구름이 걸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를 보고 '상서로운 구름'이라면서 앞으로 전란이 있을 터인데 이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말로 왜구가 침략해 들어왔으나 풍기와 영천지방에는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야사를 통해 널리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실제로 정치의 한가운데에서도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조실록」이나 「영조실록」은 알려 준다.

선조 25년(1592) 4월 부산에 상륙하여 북으로 진격하던 왜군은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듯 그 기세가 등등했지만, 명나라의 원군이 참전하면서 조선군의 저항은 더욱 효과를 내기 시작하여 이듬해 1월에는 평양을 수복했다. 평양 수복과 함께 조정에서는 앞으로 곧 있을 서울 수복과 함께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또 위로하느냐가 걱정거리였다. 이를 논의하던 자리에는 물론 당시의 고관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유명한 이항복(李恒福)은 당시 병조판서(국방장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 이야기하던 끝에 선조 임금 이 명나라 장군 하나가 망기(望氣: 기를 관찰함)한 일을 꺼내며 이 때의 기라는 것은 구름을 가리키는가

고 물었다. 그러자 이항복이 나서서 천문가는 구름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조판서 이산보(李山甫)가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사고가 망기를 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 22년 전에 죽은 남사고의 이름이 선조와 대신들 사이에 화제로 등장했었음을 보여준다. 「선조실록」에 보면 이보다 5일 전에 중국 장군 한 사람이 망기를 한 결과 "세 기(三氣)가 모두 왕성하지만, 특히 임금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 왕기가 특히 왕성하니 국토의 회복은 의심할 바 없다"고 예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선조와 신하들은 바로 이를 화제로 올리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선조는 "심히 이상하도다!"라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0년 후 李麟佐 亂도 예언

남사고의 이름은 그 후에도 이따금 조정에서조차 화제가 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면 1733년(영조 9)의 흉서(凶書)사건 때에도 그 배경은 바로 「남사고비기」에 있었다고 당시 「실록」은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 흉서란 글의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그냥 들 수 없는 허무맹랑한 예언 등을 근거로 남원(南原) 사람들 사이에 말썽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팔공암의 주지 태진(太眞)이 제공한 「남사고 비기」를 거론했고, 태진은 또 그 책을 1729년 오서산에서 도승(道僧) 자명(自明)을 만나 베껴주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여하튼 이 조사에는 여러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남사고의 예언을 믿고 행동하다가 사건에 말려든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남사고의 예언이 갑자(甲子)년의 일부터 해마다 예언해 놓았는데, 해마다 맞았고, 특히 무신(戊申)년에는 "피가 흘러 개울을 이루고, 길은 막히고 연기가 끊어진다"고 예언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 갑자년이란 1684년을 가리키는데, 숙종 10년이다. 또 무신년이란 1728년(영조 4)을 말하는데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난 해다. 아마 당시 흉흉한 인심을 반영한 것이 이 사건이었을 것이다. 영조가 남사고에 대해 묻자, 한 신하는 그가 성종 때의 이인(異人)이라면서, 그의 「비기」가 세상에 전해져 퍼져있는데, 거기에 뒷사람들이 붙여넣고, 또는 억지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 옳은 말을 이미 그는 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옛 책들은 뒤로 갈수록 알고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고, 억지 해석되어 엉뚱한 역할을 하는 수가 많다. 남사고의 역사적 역할도 그랬던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 때의 지식층이 이미 미신이라 제껴두었던 풍수지리 내지는 그것과 연결된 예언술이 21세기를 말하는 오늘의 한국 땅에서도 성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런 일이다. 풍수지리란 옛날의 과학은 될 수 있고, 그래서 과학사를 하는 나의 관심 대상이기는 하지만, 오늘 남사고의 주장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사고는 옛날의 '과학자'일 수는 있고, 또 그런 인물로서 크게 존경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과학과는 너무나 먼 사람이다. ⑤7